

‘규칙따르기 역설’에 대한 크립키 논증의 비판적 분석*

박 만 업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의 후기 철학의 궤적을 살피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문제에 대해 회의적 해석으로 유명한 크립키는 『탐구』의 201절을 문제 삼으며 ‘역설’의 문제를 새로운 형식의 철학적 회의주의로 간주했다. 본 논문은 규칙의 역설에 대한 크립키의 논증이 비트겐슈타인의 관점과 무엇 때문에 충돌하는지를 밝히면서 그와 함께 비트겐슈타인이 ‘규칙의 역설’을 제시한 궁극적 이유를 규명하는데 있다. 규칙의 역설에 대한 크립키 논증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다룸으로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규칙은 우리들의 행동을 이끄는 지침의 역할을 하며, 규칙의 문제를 추론과 연관시켜 수학적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인간의 지적 활동이며, 규칙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은 귀납적 회의주의와 무관하다. 이런 맥락에서 비트겐슈타인을 회의주의자 혹은 상대주의자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오히려 어떤 이론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봄의 방식을 강조한 철학자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주요어】 비트겐슈타인, 크립키, 규칙따르기의 역설, 회의주의, 문법적 규칙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4-AS0018)

1

인간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며, 이러한 언어의 사용에는 나름대로의 규칙과 규범이 작용한다. 언어의 공적 ‘사용’¹⁾을 강조하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언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을 토대로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들의 집합체인 동시에 언어의 다양한 용법을 규제하는 규칙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일련의 규범적인 활동이다. 또한 규칙을 따르는 인간의 행위에는 삶의 다양한 양식들이 전제되어 있으며,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탐구』와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에서 규칙 따르기 문제를 중요한 논제로 폭넓게 다루고 있다.²⁾ 따라서 비트

1)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사용’은 언어를 단순히 말이나 조작적 규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자연의 사실과 역사적인 삶의 양식들과의 총체적인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은 단순히 관습이나 유행, 전통 등에 결정되는 실제적인 ‘용법’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구공을 사용하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사용은 하나의 규칙 즉 게임(놀이)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용은 유용성을 넘어서 ‘사람들 간에’ 통용될 수 있는 규칙과 관련되어 있다. 언어의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이 『탐구』에서 언급한 다음의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철학자들이 어떤 말을 사용할 때 그리고 그들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할 때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보아야 한다. 그 말은 언제나 그 말의 본래 고향의 언어놀이 속에서 그렇게 사용된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들을 그것의 형이상학적 사용에서 일상적인 사용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PI, § 116)

2) 본 논문과 각주에서 인용된 비트겐슈타인 주요 저술의 약어 표기는 다음과 같다. 예컨대, PI, § 201은 『탐구』 201절을, RFM, IV § 18은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 제4부 18절을 가리킨다. 특히 RFM에 대한 인용은 편의상 1967년도 판을 번역한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 비트겐슈타인 지음, 박정일 옮김, 서광사, 1997을 따랐다.

젠슈타인의 규칙따르기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의 후기 철학의 궤적을 살피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규칙의 표현과 그것의 의미는 언어놀이,³⁾ 즉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의 부분이다. 예컨대 장기에서 사용되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라는 게임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처럼, 한 낱말의 의미는 그 말이 사용되는 전체적인 언어놀이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처럼 언어의 의미는 그 언어에서 사용되는 문법적 규칙들에 의해서 정의되고, 구성되고, 결정되고 혹은 고정된다. 그러므로 '규칙'이라는 말의 문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규칙으로 따를지'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문법적 물음을 통해서 규칙의 개념, 규칙의 적용과 관련된 회의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이 염두에 둔 철학적 치료의 주된 목적이다.

학문의 역사에 있어서 역설의 등장은 제반 이론의 근거에 문제를 야기하면서 동시에 이론적 발전을 자극해 왔다. 예를 들어, 러셀의 역설은 소박한 집합이론이 집합의 형성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수학자들은 비직관적으로 집합들의 형성을 제한하는 체르멜로-프랜켈 집합이론과 같은 보다 강력한 집합 이론들이 형성되었다. 특히 논리적 역설은 진리치를 결정하는데 많은 난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난점들 모두가 역설인 것은 아니며, 모든 역설들이 논리학의 역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역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역설로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의 매력적인 원리에 대하여 분명한 반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언어놀이란 낱말은 여기서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활동의 일부 또는 삶의 양식의 일부임을 부각시키고자 의도된 것이다.”(PI, § 23) 박정일은 “언어와 얽혀 있는 활동들의 전체”로서 ‘언어놀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언어놀이와 언어실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박정일(2002), 『논리연구』 제5집 제2호, 88쪽.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역설의 측면은 색다른 측면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규칙따르기 문제에 대해 회의적 해석으로 유명한 크립키는 『탐구』의 § 201을 문제 삼으며 ‘역설’의 문제를 새로운 형식의 철학적 회의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했다. 그렇지만 규칙의 역설에 대한 크립키의 논증은 결과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과 상반된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양자의 상반된 관점이 어디에서 비롯되며, 비트겐슈타인이 ‘규칙의 역설’ 문제를 제시한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철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아울러 수학과 철학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에서는 주로 ‘규칙의 역설’에 대한 크립키 논증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3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규칙따르기 문제를 다름으로써 규칙은 우리들의 행동을 이끄는 지침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인다. 4에서는 규칙의 문제를 추론과 연관시켜 수학이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인간의 지적 활동이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은 귀납적 회의주의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인다. 5에서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상대주의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임을 밝힌다.

2

비트겐슈타인이 『탐구』 § 201에서 제시한 ‘규칙의 역설’에 대해 회의적인 해석으로 유명한 크립키는 “비트겐슈타인은 새로운 형식의 회의주의를 창안하였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철학에서 가장 급진적이며 본래적인 문제”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형식의 회의주의는

4) Kripke(1982),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 Oxford, Blackwell, 60쪽.

단적으로 “어떤 낱말에 의해서도 의미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⁵⁾는 점을 함축한다. 크립키에 의하면, 인과 문제에 대한 흄의 방식과 비슷하게 비트겐슈타인 역시 회의주의적 역설을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정당화 조건 개념을 가지고 해결하지만, 진리 조건적 의미론의 틀에서는 그러한 역설이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크립키의 해석은 낱말이나 기호의 사용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확정성’ 문제에 대한 회의주의적 귀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산수에서 덧셈을 할 적에, 우리는 ‘더하기’라는 낱말 혹은 ‘+’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그 기호의 의미에 의해서 그 덧셈의 결과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을 지라도 결국은 확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덧셈에 관련된 나의 과거의 의도들이 미래에도 비확정적으로 많은 새로운 경우들에 대해 유일한 답을 결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 $68 + 57$ ’과 같은 산수식이 과거에 해보지 않은 덧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덧셈의 규칙에 따라 68과 57의 합은 125라는 결과를 내놓는다. 이는 ‘+’기호에 대해 현재 사용하는 의미와 과거에 사용한 의미가 일치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성립한다. 그러나 『탐구』 § 143과 § 18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을 뒤엎는 가정을, 즉 어떤 학생에게 수의 열을 결정하거나 ‘더하기 2’를 하라는 선생의 명령을 어떤 식으로 행하든 간에 그 학생은 주어진 규칙을 얼마든지 자기 방식대로 따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 크립키 역시 57보다 작은 수와 어떤 수를 더하는데 익숙한 어떤 학생이 ‘ $68 + 57$ ’의 합은 125가 아니라, 5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크립키가 설정한 그 학생의 경우도 자신이 과거에 사용한 더하기 기호 ‘+’를 “ x 와 y 가 57보다 작으면, x 와 $y = x + y$ 이고,

5) 같은 책, 55쪽.

그 밖의 경우는 $x(+)y=5$ 로 정의되는 함수(여기서 (+)는 크립키가 명명한 ‘터하기’(quus) 함수이다)로 이해하는 한 그 학생은 언제나 자신의 규칙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⁶⁾ 여기까지는 비트겐슈타인과 크립키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궁극적으로 규칙따르기와 관련된 의미의 문제로부터 귀결되는 점은 완전히 다르다. 크립키는 ‘+’기호가 과거는 물론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일관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용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실제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기호의 의미를 확정한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크립키는 어떤 기호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그 기호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칙따르기를 통한 의미의 확정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탐구』 § 201에서 이끌어내고자 했던 바는 크립키가 제시한 회의주의적 결론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견해는 상반적이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하나의 기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호소할 수 있는 어떠한 확정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호의 올바른 해석과 잘못된 해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탐구』 § 201을 살펴보자.

우리의 역설은 어떤 하나의 규칙이 어떠한 행동 방식도 확정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각각의 모든 행동 방식은 규칙에 일치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만일 각각의 모든 행동 방식이 규칙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면, 또한 모순되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치도 모순도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6) 같은 책, 5쪽.

크립키는 위의 인용문 첫 구절에 있는 ‘우리의 역설’을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역설로 인정하는 오해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탐구』 § 201에서 언급한 ‘우리의 역설’은 단지 이미 앞에서 비트겐슈타인과 자신의 무언의 대화 상대자⁷⁾ 간에 벌어진 대화 속에서 야기된 역설일 뿐이지, 비트겐슈타인 자신이 결론적으로 도출한 역설이 아니라는 점은 비트겐슈타인의 여러 연구가들에 의해 지적된 바가 있다. 크립키는 ‘우리의 역설’ 다음에 나오는 ‘이에 대한 대답’을 비트겐슈타인 자신의 역설의 한 부분으로 생각한 나머지 “회의론적 증명은 답변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다”⁸⁾는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한다. 크립키가 말하는 회의적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트겐슈타인과 무언의 대화를 나눈 상대자이다. 그러므로 『탐구』 § 201의 “모든 것이 규칙과 일치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또한 그 규칙과 모순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구절은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무언의 상대자에게 규칙의 역설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탐구』 § 201에서 제시된 논증 방식은 일종의 귀류 논증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규칙따르기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잘못된 개념을 제시한 후 그것의 무의미성을 밝히는데 있다.⁹⁾

7) 비트겐슈타인의 『탐구』나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을 읽을 적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등장하는 무언의 대화 상대자interlocutor가 별 볼일 없는 철학자가 던지는 의문, 주장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오해이다. 무언의 대화 상대자는 어리석지도 요점을 벗어나 말하는 적이 없다. 오히려 고지식할 정도로 그가 말하는 것들이 단순한 이유는 (비트겐슈타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끌리는 성숙한 이론들이 얼마만큼 현학적이며 설명적인가 하는 물음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묻게끔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Floyd(1991), “Wittgenstein on 2, 2, 2 ...: The Opening of Remarks o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Synthese* 87: 144-5쪽 참고.

8) Kripke(1982), 55쪽.

9) 쉐커 역시 Baker, G.P & Hacker, P.M.S(1985), *Rules, Grammer and*

비트겐슈타인이 『탐구』 § 201에서 드러내고자 한 점은 규칙따르
기에서 사용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해석만으로는 기호
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비트겐슈타인이 하나의 표
현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 해석이 규칙과 일치하는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결
과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어떠한 행동방식도 규칙에 일치한다는 역
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어떤 하나의 규칙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이 규칙의 해석을 제공한다면, 즉 규칙에 대한 하나의
표현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다면, 이러한 역설은 귀결될 것
이라고 말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규칙과 행위의 일치는 해석의 차
원이 아닌 훈련과 실천의 맥락에서만 확립될 수 있다. 비트겐슈타
인의 이러한 생각은 『탐구』 § 198에서 이미 제시되고 있다. “어떠
한 해석도 규칙이 해석되는 것과 함께 공중에 떠 있으며, 규칙에
어떠한 지지도 부여할 수 없다. 해석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확정하
지 못한다.” 왜냐하면 규칙에 대한 해석이 또 다른 상징적 표현으
로 생각된다면, 해석은 규칙과 규칙에 부합하는 행동 사이를 연결
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⁰⁾ 비트겐슈타인을 연구하
는데 있어서 『탐구』 § 198이 함축하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 이에
대한 배경적 이유를 논하는 것은 독립된 논의를 필요로 할 정도로
방대한 주제에 속한다.¹¹⁾ 우리의 논의에 필요한 핵심적 사항만을

*Necessity*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탐구』 § 201을 귀류 논증의 최종적 증명으로 입을 적에 ‘회의주의적 딜레마’는 사
라질 뿐만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이 ‘회의적’ 해석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의
미의 설명에 직면해 규칙따르기에 관해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모든 점들
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하
다,” Shanker(1987), 15쪽.

10) Marion(1998), *Wittgenstein, Finitism, and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Clarendon Press, Oxford, 156쪽 참고.

11) Hintikka(1989), “Rules, Games and Experiences: Wittgenstein’s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1930년대 초기에 비트겐슈타인은 규칙의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즉 한 편으로 규칙의 기호적 표현이 저절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학적 대상으로 생각된 규칙이 물리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탐구』 § 143-242에 있는 규칙따르기에 대한 언급들은 바로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한 철학적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규칙따르기는 현상학적 경험에 머물지 않고 복잡한 관습들 속에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나는 또한 오직 항구적인 사용, 관습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의 길 표지판을 따른다”(PI, § 198)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규칙과 언어놀이와의 관계가 보다 분명해진다. 즉 규칙들이 언어놀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놀이가 규칙에 앞서는 것이다.¹²⁾ 바로 이러한 개념적 선재성은 『탐구』 § 199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어떤 하나의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하나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기술(技術)을 지배한다는 것을 뜻한다.

『탐구』 § 198과 § 201에서 제시된 논증의 유형은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 I § 3에서 제시되고 있는 ‘+2’의 수열을 전개하는 논리적 추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¹³⁾

Discussion of Rule-Following in the Light of his Development,”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43.

12) Marion(1998), 154-157쪽 참고.

13) Baker & Hacker(1985), 149쪽 참고. 비트겐슈타인이 *RFM*, I § 3에서 “수열 ‘+2’를 전개함에 있어서 내가 “20004, 20008”이 아니라 “20004, 20006”이라고 써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아는가? — (이는 “이 색 깔이 ‘빨강’임을 나는 어떻게 아는가?”라는 물음과 비슷하다.)”고 한 대목은 *PI*, § 381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 색이 붉은 색이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아는가? — 하나의 대답은, “나는 우리말을 배웠다”일 것이다.” 그렇지만 양

크립키에 의하면, 회의주의적 역설의 해결책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깔려 있다. 의미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논고』에서 제시되었던 ‘진리 조건’을 ‘주장가능성 조건’ 내지는 ‘정당화 조건’으로 대체해야 하며,¹⁴⁾ 이러한 주장가능성 또는 정당화 조건은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크립키의 해석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규칙따르기의 역설을 어떤 기호로써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진술에 대응하는 진리 조건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의미의 문제를 진리 조건적 의미 이론의 틀에서 보는 한 역설은 피할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이 주장가능성 혹은 정당화 조건에 기초한 언어상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그것들이 정당하게 주장될 수 있는 대략적으로 분명한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주장하는 놀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이다.”¹⁵⁾ 계속해서 크립키는 “‘존스는 ‘+’라는 기호가 더하기를 의미한다’와 같은 진술을 참이게끔 해주는 진리조건들이나 대응적인 사실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회의주의자들에게 시인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주장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야만 한다”¹⁶⁾고 주장한다.” 회의주의적 역설을 피하기 위해 사용의 측면을 강조하는 크립키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규칙따르기에서 주장가능성 조건이나 정당화 조건이 사회 공동체의 차원

자의 맥락은 다르다. *PI*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논하고자 하는 점은 사적인 지시적 정의와 하나의 이미지에 의해서 그러한 정의가 확신될 수 있으리라는 가상의 대화자가 품고 있는 생각을 문제시하는 반면, *RFM*에서는 논리적 추론의 성격에 관해 논하는 것이다. Baker and Hacker(1984), *Scepticism, Rules and Language*, Basil Blackwell, Oxford, 26쪽 참고.

14) Kripke(1982), 74쪽.

15) 같은 책, 77-8쪽.

16) 같은 책, 86쪽.

에서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컨대 산수에서 더하기의 개념을 충분히 익혔다고 주장하는 어떤 한 개인의 주장 조건이나 정당화 조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 공동체의 반응과 일치할 경우에 한해서만, 그 개인은 언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자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된다.¹⁷⁾

크립키가 언어의 사용적 측면과 관련해서 사회공동체의 일치를 고려했다는 점은 비트겐슈타인의 생각과 어느 정도 올바르게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크립키의 해석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진리 조건적 의미이론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주장가능성 조건이나 정당화 조건을 옹호해야 한다는 그의 전략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크립키의 생각은 양자의 대립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서 그 대안으로 주장가능성 조건이나 정당화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양자의 입장을 모두 언어놀이를 구성하는 문법적 규칙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크립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진리 조건적 의미이론을 비판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비판한 진리 조건적 의미이론은 명제의 참, 거짓이 톱니바퀴처럼 진리 개념에 맞물려 있다는 식의 실재론자의 그림을 거부한 것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기반에서 참, 거짓의 개념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은 아니다.¹⁸⁾ 이를테면 우리가 Fx 와 같은 문장들의 진리 조건들을 기술하고자 한다면, “ x 는 푸르다”는 ‘ x ’가 ‘푸르다’로 불리는 색의 경우에만 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조건들의 참에 대해 그 이상의 어떠한 정보적인 진술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 밖에 도달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할 수 없기”(PR, § 6) 때문이다.¹⁹⁾

또한 진리 문제가 사용의 측면과 결합되면 검증이나 정당화의

17) 같은 책, 91-2쪽.

18) 이 점에 대해서는 PR, § 43과 PI, § 136을 참고할 것.

19) 각주 6) 참고.

개념으로 바뀐다는 더밋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트겐슈타인은 문법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한다. 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탐구』 § 353에 잘 나타나 있다. “어떤 명제의 검증 방식과 검증 가능성에 관한 물음은 ‘당신은 그것을 어떤 뜻으로 말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의 오직 특수한 하나의 형식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문법에 대한 하나의 기여이다.” 정당화 조건에 대해서도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비켜간다. “정당화 없이 낱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RFM*, V § 33) 이런 점에서 크립키가 제시한 대안은 비트겐슈타인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주로 크립키가 『탐구』 § 201에 관련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반면에, 규칙, 강제, 일치, 동일성 등의 개념들 간의 관계를 다룬 §§ 203-242 부분을 소홀하게 취급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⁰⁾

『탐구』 § 201에서 말하는 역설은 말 그대로 결함 있는 상황에서 서만 발생한다. 상황이 고쳐진다면 역설은 사라질 것이다.²¹⁾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역설은 우리가, 언어는 언제나 하나의 방식으로만 기능하며 언제나 같은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는 관념, 즉 언어는 사고를 전달한다는 관념을 탈피할 경우에만 사라진다.”(*PI*, § 304) 모든 역설은 위장된 무의미한 말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어떤 논증에 의해서도 수용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회해서 통과할 수도 없다.²²⁾ 철학적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언어 속에서 낱말

20) Goldfarb(1985), “Kripke on Wittgenstein on Rules,” in Miller and Wright(2002), *Rulefollowing and Meaning*,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93쪽 참고.

21) “놀라운 것은 역설인데, 이것은 오직 어떤, 말하자면 결함 있는 환경에서만 역설이다. 사람들은 역설로 보이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이 환경을 보충해야만 한다.” *RFM*, V § 36.

22) 베이커와 해커는 역설이 발생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규칙을 올바른 기준으로 사용하려는 우리의 결정을 규칙에 투사하는 결정에

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낱말들의 정의만으로는 올바른 의사소통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어적 교류에서 낱말들의 사용은 얹혀 있으며, 이러한 낱말들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행하는 역할은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과는 다르기”(PI, § 182)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계산하는 법을 배울 적에 혹은 계산을 실제로 할 적에 머리 속에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일상 언어의 표현에서 생기는 의미들의 당혹함에 주목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이 내적인 것에 왜 적대적인지를 입증하고자 한 크립키의 시도는²³⁾ 비트겐슈타인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적대시한 ‘내적인 것’은 데카르트적 의미로서 사적으로 이해된 내적인 것이지만, 일상적 의미로 이해된 내적인 것은 오히려 문법적 규칙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용했다.²⁴⁾

대한 잘못된 개념 ② 이해에 대한 오해: 내가 하나의 주어진 규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내가 하나의 해석을 함으로써 설명하는 어떤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규칙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③ 규칙들과 그것들의 적용 간에 내적인 관계에 대한 잘못된 그림 ④ 해석이 계속해서 가능한 올바른 사고와 해석이 필연적이라는 거짓된 사고간의 혼동. Baker and Hacker(1985), 150쪽.

23) Kripke(1982), 14쪽.

24)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크립키를 반론하는 입장 못지않게 크립키 역시 비트겐슈타인을 다른 마음의 존재에 대한 회의주의자로 해석한다. 더 나아가 크립키는 이러한 생각이 회의적 역설의 다른 형태라고 주장하며,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형태의 회의적 역설에 대응하여 또 다른 회의적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힌티카 역시 『Investigating Wittgenstein』(1986)에서 크루소의 언어는 사적 언어일 수 없음을 보이면서 비트겐슈타인을 또 다른 데카르트주의자로 해석한다. 남기창(1994), “크루소의 언어는 사적 언어인가?”, 『비트겐슈타인과 언어』, 박영식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현암사, 1994. 240쪽 참고.

3

규칙따르기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논의는 『탐구』 § 143에서 10진법 체계의 자연수 열을 학습하는 언어 놀이의 고찰로부터 시작된다. 비트겐슈타인이 규칙따르기 논증에서 산수의 예를 제시한 까닭은 산수의 가르침과 학습을 통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의미와 이해의 본질적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충분한 예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은 전통적으로 합리성 또는 이성으로 규정되어온 사유의 본질이 필연적으로 사적일 수밖에 없다는 통찰과 관련이 있다. 아울러 규칙따르기 개념은 낱말의 사용과 외연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의미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온 기존의 의미 이론에 대한 비판적 생각과도 연계된다.²⁵⁾

필연성의 원리에도 맞물려 있는 규칙따르기 개념은²⁶⁾ 규칙따르기의 공적인 규범적 성격을 강조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점이 제대로 규명될 적에야 비로소 비트겐슈타인이 『탐구』 § 201에서 이끌어 낸 ‘규칙의 역설’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의 규범성은 크립키의 생각처럼 ‘회의주의적 해결’을 통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따르기의 옳고 그름이 규칙을 행하는 실천의 맥락에서 규범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먼저 『탐구』 § 143에 나와 있는 예를 살펴보자. 0에서 9까지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자연수 열을 가르치는 사람과 그것을 배우는 학습자는 서로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는

25) *PI*, § 143 각주 참고.

26) *PI*, § 372와 Shanker(1987), 10쪽 참고.

수의 열에 대한 규칙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학습자가 쓴 수의 열은 가르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0, 1, 2, 3, 4, 5, ... 식으로가 아니라, 1, 0, 2, 3, 5, 4, ... 식으로 적는 실수를 범한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학습자는 수의 열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이 되며,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 능력은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학생의 학습 능력은 중단될 수 있다’고 내가 말할 때, 내가 뜻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부터 보고하고 있는가? 물론 아니다. ...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 어쨌든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말했으면 한다: “그렇다, 그건 참이다, 그렇게도 또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PI, § 144) 비트겐슈타인 자신도 “불규칙적인 실수와 체계적인 실수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다”(PI, § 143)고 지적한 것처럼, 문제는 서로가 수의 열에 대한 규칙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데서 생긴 것이다. 이는 어느 것이 잘못된지를 가늠할 기준이 공적이 아닌 사적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간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 학습자는 우리가 하는 식대로 수의 열을 계속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가 그것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는 어디까지 그 수열을 올바르게 계속해 나가야 하는가? 당신은 여기서도 어떠한 제한도 제시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PI, § 145)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논점은 이해의 올바른 기준이 심리적 과정에 의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과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 즉 비트겐슈타인에게 ‘의미’는 더 이상 추상적인 실재도, 심적 또는 물리적 세계의 대상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 185의 예도 앞에서 말한 § 143의 예를 가지고 응용한 사례이다. 자연수 열에 어느 정도 숙달한 학생에게 이번에는 “+n”이란

형식의 수열을, 즉 $0, n, 2n, 3n$ 식으로 자연수 열을 전개하도록 한다. 예컨대, 1000까지는 “+1”이라 수의 열을 나열하는 것을 연습한 다음에, 이번에는 “+2”와 같은 수열을 1000을 넘어서 해보게끔 한다. 그런데 그 학생은 엉뚱하게도 1000, 1004, 1008, 1012, ..., 식으로 쓴다. 아마도 이 학생은 “+2”란 수열을 1000까지는 매번 2를 더하고, 2000까지는 4를 더하고, 3000까지는 6을 더하는 식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것 역시 앞에서 제기되었던 것과 문제의 양상은 똑같은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수사적 비유를 통해 우회적인 답변을 한다. “이 경우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동작에 대해 어떤 사람이 자연적으로 손목에서 손가락 쪽 방향을 보는 대신 손가락에서 손목 쪽 방향으로 봄으로써 반응하는 것과 유사성을 가질 것이다.”(*PI*, § 185) 아마도 비트겐슈타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고나 의미가 언어 자체에 의해 고정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즉 지시적 언어에 의해 의미체와 같은 어떤 본질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답변을 했을 것이다. 삶의 양식에 기반을 둔 언어의 사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언어의 고정적인 의미나 이해의 차원에 집착해서는 비트겐슈타인이 경계하는 언어의 미로에 빠질 위험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날말의 총체적인 사용을 일거에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PI, § 191, 197) 역시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는 독단적, 유아론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수의 열을 ‘+n’과 같은 식으로 전개하거나, $y = x^2$ 과 같은 수학의 식을 일련의 규칙을 따르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계산 절차와 같은 계산 행위에는 어떠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표준적이며 이상적인 규칙따르기의 전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규칙을 따를 적에도 우리는 사유의 과정 속에는 마치 “철학적 최상급”(PI, § 192)과 같은 절대적이며 객관

적인 사실에 의해 인도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다. 우리가 규칙을 적용할 적에는 마치 어떤 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규칙의 개념이나 수학의 식을 전개하거나 혹은 함수를 계산하는 것은 모두 아무런 한계를 갖지 않고 전체적으로 적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점을 문제시한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2’와 같은 자연수의 열을 전개하라는 명령의 뜻이 어떤 하나의 수로부터 그 바로 다음 수로의 모든 이행 단계 각각을 완전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에 의문을 제기한다.²⁷⁾ 이와 마찬가지로 $y = x^2$ 과 같은 대수식에서도 이러한 이행의 단계들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역시 잘못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규칙이나 함수는 모두 자신들의 예에 해당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식($y = x^2$ 과 $y \neq x^2$)들에 상응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용의 측면을 대비해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참고: *PI*, § 189). 또한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은 기계를 작동함으로써 물리적 “운동의 가능성”(PI, § 193-4)을 미래에까지 확정짓는 우리의 표현 방식도 결국은 “미래의 사용을 인과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PI, § 195, 198) 생각으로 이어진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운동의 가능성은 운동이 아니며, 운동 자체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PI, § 194)

『탐구』에서 제시된 규칙따르기 개념을 통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누군가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서 나타난 철학적 어려움을 다룬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사람들에게 따라서는 이러한 능력은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만족할 만한 설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할

27) *PI*, § 188 참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규칙따르기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과 같은 요인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은 『탐구』 § 208에서 사람들이 한 학생에게 같은 도형들, 같은 길이들, 같은 색 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그 학생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의 장식적인 도형들, 또는 수의 열을 계속하게끔 하며, 그에게 여러 가지 예들과 연습을 하도록 하며,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 줌으로써 그가 계속하도록 혹은 선생의 가르침에 의지하거나 등등의 일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염두에 두었던 철학적 어려움은 그러한 가르침이 무엇과 같아야 하는지를 기억해낸다고 해서 만족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은 계속해서 § 209에서 “설명에 대한 이해는 보다 더 깊어야 하지 않는가? — 아니 도대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이해의 과정에는 반드시 위에서 제시된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학생 스스로 하나의 도형이나 수열을 지속적으로 하는지를 그는 어떻게 아는가?”(*PI*, § 211)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자신이 어떻게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를 그에게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그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다양한 성향들을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탐구한다.²⁸⁾

첫째, 통상적으로 우리는 규칙들의 의미에 의해 인도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크립키는 더하기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무언가가, 즉 그 사람이 더하기 기호에 부여한 의미가 그로 하여금 미래의 모든 경우들에서도 더하기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28) Malcolm(1986), 179-80쪽 참고.

를 그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했다. 크립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은 마치 당신의 마음이 앞질러 나아가서는 당신이 육체적으로 이 단계 혹은 저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모든 단계들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기술하면서 그러한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신화적인 성격을 비판할 것이다. 또 다른 비판은 “만일 그런 어떤 것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PI*, § 219)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설령 미래의 단계들이 이미 나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따라서 사실상 내가 해야만 했던 모든 것은 내가 그러한 육체적 단계들을 택했을 적에도 그러한 단계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다르게 모방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단계들에 대한 신화적 요인은 이미 설령 그것이 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규칙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해결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성향은 직관에 호소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수열 혹은 하나의 도형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 나는 반드시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은 아주 간단하다. “그리고 직관이 나를 잘못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아는가? 왜냐하면 직관이 나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면, 그 직관은 또한 나를 잘못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PI*, § 213) 한편 규칙따르기에 대한 직관의 문제와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의 기초에 관한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각각의 단계에서 직관이 아니라, 결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다. 당신은 결정을 하지 않는다. 당신은 단순히 어떤 것을 한다. 그것은 일정한 실천의 문제이다.”(*LFM*, 237쪽) 이러한 생각은 그의 『갈색본』에도 이미 나타나 있다.

우리가 계열들의 특정한 지점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규칙들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통찰, 직관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을 결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덜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 역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결정의 행위와 같은 것이 발생되어야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BB, 143쪽).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규칙따르기 논증의 핵심은 사적인 심적 과정들에 의한 어떠한 설명도 부적절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성향은 1, 3, 5, 7, 9, ...와 같은 어떤 하나의 수열에 있어서 나는 무엇이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게끔 해주는지를 지각하며, 따라서 나는 그 수열을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 나간다고 말하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러나 같은 것은 적어도 같지 않은가?”(PI, § 215) 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언급에서 암시되어 있다. 계속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이에 답변으로 이러한 추상적인 방식으로 ‘같은 것’에 나는 호소할 수 없다고 본다. 나는 ‘같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같은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은 규칙을 따르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같은 것의 지각에 대해 호소하는 것 역시 내가 어떻게 규칙을 따를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 어떤 특정한 규칙과 분리되어 생각할 적에, 1, 3, 5, 7, 9, ... 와 같은 수열을 적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번 같은 것을, 혹은 다른 것을 하는지를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번째 성향은 “수열의 시작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무한까지 놓여진 궤도의 눈에 보이는 한 토막일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 우리는 규칙대신에 궤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규칙의 한정되지 않은 적용에는 무한히 긴 궤도가 대응한다”(PI, § 218)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수열을 올바른 방식으로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자신이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생각 역시 온당하지 않다. 무한한 궤도의 이미지는 실재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플라톤주의의 이미지로서 비트겐슈타인으로서 당연히 거부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수학자는 이미 있는 옛날 길을 기반으로 새로운 길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창조적이다.²⁹⁾

다섯 번째 성향은 하나의 규칙이나 유형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따를지를 나에게 은연중에 암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소리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라!”(PI, § 232)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식으로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영감과도 같은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한, 나로서는 내가 행하는 대로 규칙이나 유형을 그에게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상과 같은 성향들이 궁극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규칙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비트겐슈타인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 대한 철학적 어려움을 규명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기존의 철학적 사고방식에서 통용되어 왔던 생각들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규칙을 따르는 우리의 능력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못된다.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 우리는 일정한 실천적 행위와 관련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답변은 의외로 평범하다. 우리는 우리들이 행하는 실천적 훈련에 입각해서 아무런 지침

29) Marion(1998), 226쪽. Klenk(1976), 88쪽 참고.

없이 계속해서 일치를 이루고, 규칙을 따르고, 새로운 경우들에 있어서 낱말들을 적용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삶의 양식”이라는 기반일 뿐이며,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규칙을 파악한 다음에는 반드시 규칙은 이리이러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강요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규칙을 따르게끔 하는 것은 규칙인가? 규칙 자체가 그럴 수 없다. 우리로 하여금 규칙을 따르게끔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 자신이다.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일정한 방식으로 이끄는 무한히 긴 첩로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규칙을 적용하는 전체적 그림을 우리가 사전에 가지고 있거나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규칙을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쉐ink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규칙따르기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규칙을 파악하면, 우리는 이리이러한 방식으로 규칙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필연성의 원리에 의존한다.”³⁰⁾

비트겐슈타인은 규칙의 존재를 언어에 의존하는 특성과 연계해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필연성의 문제는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규범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규칙의 필연성에 대한 심적인 인상은 결국 사적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은 규칙따르기 개념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을 토대로 이해의 공유를 가늠하는 객관적 지표로 운용되는 것을 강조한다. 아무도 관심 있게 보지 않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이 비트겐슈타인에게에는 자신의 철학적 탐구의 진정한

30) Shanker(1987), 17쪽. 『탐구』에서는 필연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규칙따르기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수학 철학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필연성과 관련해서 수학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첩로에 비유하는 스트로드의 주장도 참고할 만하다. Stroud(1965), 301쪽.

기초가 될 철학적 지혜의 원천이었다.³¹⁾

규칙이라는 말에는 문법적으로 이미 규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정규적인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여기서 규칙따르기와 관련된 인간들의 일치는 “의견에서의 일치가 아니라 행위, 즉 삶의 양식에서의 일치이며”(PI, § 241),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규칙따르기의 일치는 “우리의 언어가 작용하는 (예컨대 어떤 하나의 기술(記述)을 주는) 발판에 속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의사소통의 정립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크립키에게 있어서, 화자들 간의 일치는 의미를 귀속하거나 규칙을 고수하는 것에 근거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일치에 대해 그러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일치는 규칙따르기에서 나타나지만, 규칙따르기를 근거로 하지는 않는다.³²⁾

비트겐슈타인이 『탐구』 § 143과 § 185에서 수열을 이상한 방식으로 전개하는 학생의 예를 제시했던 이유는 『탐구』 § 142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경우들 속에서만 말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오직 정상적인 경우들 속에서만 말의 사용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규정된다. 즉 오직 정상적인 경우들 속에서만 우리는 이 또는 저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며, 아무 의심을 가지지 않는다. ... 규칙이 예외가 되고 예외인 것이 규칙으로 된다면, 그 둘이 대략 같은 빈도로 일어나는 현상이 된다면 — 우리의 정상적인 언어놀이요점을 상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열을 전개하는데 체계적인 실수를 범하는 § 143에 나오는 학생의 경우는 우리의 언어놀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그 학생의 학습 능력은 중지될 수밖에

31) PI, § 129 참고.

32) Goldfarb(1985), 104쪽, PI, § 224, 214 참고.

에 없다. 반면에 § 185에 나오는 학생의 경우는 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규칙따르기를 하는 언어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두 학생을 단순히 비교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식의 상황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양식에 기반을 둔 언어 행위를 기반으로 올바른 의사소통과 해석의 문제를 열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공통적인 행동 방식은 우리가 우리에게 낯선 어떤 하나의 언어를 해석할 때 의거하는 준거들이다.”(*PI*, § 206)

인간의 언어활동에서 비롯된 규칙의 존재는 사유 활동에 입각해 세계를 인식하는 단순한 기술(記述)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행위의 방식이며 나아가서는 인간적인 삶의 방식에서 펼쳐지는 역사와 문화를 전개하는 다양한 언어놀이이다. 따라서 규칙의 개념과 언어의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일치는 ‘삶의 양식’에서의 일치로 귀결된다. 이러한 일치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비트겐슈타인에게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규칙을 따르는 것’ 혹은 ‘한 낱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개념들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³³⁾ 같은 식으로 인간의 일치에 대해서도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받아들여야 할 것은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삶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PI*, 226e)

비트겐슈타인이 § 201에서 ‘규칙의 역설’을 이끌어 낸 이유는 어느 정도 분명해졌다. 비트겐슈타인이 규칙의 역설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킨 주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언어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있을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었다. 얼핏 보아서, 이 점은 크립키

33) 이와 관련해서 “한 언어놀이의 기술(記述)은 이미 하나의 기술임을 기억하라. … 우리는 말하고 행동한다. 그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이미 전제되어 있다.”(*RFM*, VI § 17)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가 규정한 새로운 형식의 회의주의의 특징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실제로 크립키는 규칙의 역설에 대한 지나친 회의주의적 해석에 천착한 나머지, 단순히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유된 지식의 가능성조차 부인한다.³⁴⁾

따라서 어떤 규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규칙을 따르는 행위에서 파악하는 것이지, 생각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규칙은 ‘...하게 해야 한다’는 진술이기 때문에, 규칙의 존재는 언어 의존적이며, 동시에 그 규칙을 따르는 언어적 실천내지는 관습을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규칙따르기로 간주해야 하는가?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규칙은 기계적으로 규칙의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하나의 패러다임(모형)으로 사용하는 우리들의 실천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규칙은 우리들의 행동을 이끄는 지침의 역할을 한다.³⁵⁾

마지막으로 ‘규칙의 역설’과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이 『탐구』 § 202에서 제시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규칙따르기는 규칙의 연습을 통한 실천적 행위이다. 규칙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적인 사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옳다. 규칙따르기의 존립근거는 공적인 실천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은 『탐구』 § 199에서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규칙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이,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오직 한 번 따르는 것이 가능한 어떤 것인가? 이것은 물론 ‘규칙을 따른다’는 표현의 문법에 관한 주석이다.

34) 이 문제는 사적 언어의 비판이라는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35)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은 ‘증명의 조망가능성’ 개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증명이 반드시 조망가능해야만 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반드시 그 증명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지침이 되도록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RFM, III § 22)

어떤 사람이 어떤 규칙을 오직 한 번만 따른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오직 단 한 번만 보고가 행해졌고, 명령이 행해졌거나, 이해되었다는 등등의 일은 가능하지 않다. — 규칙을 따르고, 보고를 하고, 명령을 하고, 장기를 두는 일은 하나의 관습들(사용, 제도)이다.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技術)에 숙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사적인 사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 주된 목적은 전통적 의미의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철학적 오해들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놀이를 통한 공적 규칙따르기를 통해 사적인 사유를 배제하고 객관성이라는 철학적 근거를 모색하고자 했다. 비트겐슈타인이 규칙따르기 논증에서 제시하는 결론은 이성에 근거한 사유를 본질로 규정했던 전통적 생각과는 정반대의 노선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⁶⁾ 크립키의 평가대로 규칙따르기가 여전히 회의주의적 역설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면,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규칙따르기의 가능성 문제는 회의주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규칙따르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규

36) 로고스를 증시한 전통적 생각에 의하면, “이것이 우리가 행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만족하는 대신에, 우리가 행한 것을 보장하는 로고스를 드러내는 표면을 관통하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이성의 층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표면(과 물리적 토대)만이 있을 뿐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와 관련해서 『탐구』 §654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잘못된 사실들을 ‘원현상들’primordial phenomenon로 보아야 할 곳에서, 즉 이러한 언어놀이가 행해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해야 할 곳에서, 어떤 설명을 구하는 것이다.” Schatzki(1991), “Elements of a Wittgensteinian Philosophy of the Human Sciences, *Synthese*, 87, 1991, 322쪽 참고. 수학의 기초론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비판적 탐구 정신은 궁극적으로 철학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철학의 문제는 잘못된 언어놀이에서 파생되는 불건전한 사고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이와 함께 무질서한 언어놀이에 의해 생긴 마음의 고통을 제거하려는 철학적 치료를 통해서 진정으로 철학하는 사람이 열망하는 목표인 “사고 속의 평화”(CV, 92쪽)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칙따르기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가능하며, 규칙따르기의 실천이 얼마나 객관적인가 하는 기준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닌 사회 속의 타인의 관찰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규칙을 어떻게 따르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는다. “내가 규칙을 따를 때, 나는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른다.”(*PI*, § 219) 여기서 주의할 대목은 바로 ‘맹목적으로’라는 구절이다. 그것은 몽유병자의 행동처럼 아무런 목적이 없이 마구잡이로 규칙을 따른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의 확신으로 보는 것이 옳다. 오히려 나는 무엇을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전혀 그것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에 선택하지 않는다: “규칙은 항상 우리들에게 같은 것을 말해 주며, 우리는 규칙이 말하는 것을 행한다(*PI*, § 223). “우리는 그 밖의 다른 안내에 호소하지 않고, 규칙이 가리키는 것을 보며 어떤 것을 행한다.”(*PI*, § 228) “그것은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을 호소하는 마지막 법정이다.”(*PI*, § 230) “나는 그것의 귀결을 당연한 것으로 이끌어 낸다.”(*PI*, § 238)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들은 규칙에 지배를 받는 우리의 활동들의 근저에 있는 비합리성의 간극을 벌어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실천적 행위와 문법의 견고한 기반을 가리키는 것이다.³⁷⁾

4

규칙따르기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은 그의 수확철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어떤 수학적 증

37) Baker and Hacker(1985), 105-6쪽 참고.

명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그 증명들이 안정된 언어놀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의 언어놀이를 다른 언어놀이를로 대체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본다.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한 체계 안에서 수학의 정리나 식들을 사용했다면, 그 계산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점이 수학에 있어서 본질적 특징임을 인정한다. “옳게 계산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계산 그림을 산출한다는 것은 계산(계산의 개념)에 속한다. 그리고 ‘올바르게 계산하는’이란 말은 어떤 명확한 지성에 의해서 또는 혼란 없이 계산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계산함을 의미한다.”(*RFM*, V § 24)

비트겐슈타인은 『탐구』 § 201에서 제기한 ‘규칙의 역설’과 같은 맥락으로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 I § 3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물음을 제기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규칙의 규범적인 적용의 측면을 간과한 채, 규칙의 이해를 절대적인 사유의 기준에서 평가하려는 플라톤적 실재론자들의 객관성에 대한 개념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³⁸⁾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수학적 추론은 ‘직접적’이다. 즉 사람들은 어떤 통찰이나 해석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규칙들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배운 대로 하나의 명제를 쓰고는 또 다른 명제를 쓰는 것처럼 규칙들을 적용하면서 숙달되는 과정을 겪는다. 또한 규칙의 사용을 엄격하게 연습하고 공적인 일치를 얻는다면 규칙의 일관성은 보장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인간의 실천적 행위에 입각해서 수학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수학적 대상과 사유의 일치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뒤집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이 개인적 취향이나 임의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38) 이와 관련해서는 *RFM*, I § 134를 참고할 것. “...그렇다면 산수 명제들의 참과 거짓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음에 틀림없다.”

규칙을 따르는 인간의 지적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어떤 하나의 증명의 과정에 있는 단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선택권이 우리에게는 없다.³⁹⁾ “증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절차여야 한다: 그 래, 그것은 그래야만 해; 만일 내가 이 규칙에 따라 진행해 가면 (그 증명은) 반드시 그렇게 산출되어야만 한다.”(RFM, II § 23)

우리는 통상적으로 ‘...의 의미에 따라서’라는 표현을 특정하게 적용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규칙에 따라 π 와 같은 무한 소수가 특정하게 연속되어 있다는 어법을 별 생각 없이 사용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사용자로서 우리가 표현들에 부과하는 의미들에 의한 언어적 용법의 일정한 유형들에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아무런 뜻이 없다고 보았다. 예컨대 형식화된 증명 체계에서 증명은 기계적으로 결정가능한⁴⁰⁾ 개념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어떤 잠정적인 증명을 살필 수 있는 기계를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 정리들이 되는 그러한 문장들을 사전에 엄격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다.⁴¹⁾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의미하는 방식대로 $(x)Fx$ 가 의미를 가진다면, ‘ Fa ’는 ‘ $(x)Fx$ ’에서 따라 나와야만 한다”와 같은 표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표현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미래의 경우에도 그러한 표현들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

39) *PI*, § 219 참고.

40) 논리학에서 결정가능성(decidability) 개념은 어떤 술어의 참, 거짓을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주어진 정의역 D 의 모든 원소 x 에 대해 어떤 술어 Fx 가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술어 F 는 결정가능하다고 한다.

41) 라이트 역시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한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무엇을 그 개념의 올바른 적용으로 간주해야 할지에 대해 사전에 엄격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Wright(1980), 21쪽.

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 Fa '와 ' $(x)Fx$ '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우리는 문법의 규칙에 따라서 추론을 행하는 것이다. “논리적 추론도 언어 게임의 한 부분”이므로 논리적 추론은 언어 게임에서 단순히 그러한 단계들이며, 의미가 옳은 사용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물음을 생각해 보자. “논리적 추론이 규칙들에 따라 행해지면 그 논리적 추론은 옳은가? 또는 옳은 규칙에 따라 행해지면 그 추론은 옳은가?”(*RFM*, V § 23) 이러한 물음과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적 용어들의 의미와 그러한 낱말들의 사용을 지배하는 규약을 분리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임의로 행하는 언어놀이는 생각과 추론이 통과하는 경계들의 바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⁴²⁾

추론 규칙은 기호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추론 규칙은 옳거나 그르거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추론은 특별한 실재와의 대응과 같은 논리적 관계도 아니며, 내적인 심적 활동에 의해 이해를 매개로 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⁴³⁾ 추론은 명제들 간에 이끌어 낸 결론에 해당하는 ‘그러므로’와 함께 단지 하나의 명제 다음에 다른 명제를 말하는 것이다. 추론은 단지 똑바로 진행되는 것이다. 추론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추론이 실제로 무엇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한다. ...
“추론하다”라는 동사의 특수한 사용에 오도되어 우리는 추론이 어떤

42) *RFM*, I § 116 참고.

43) 비트겐슈타인이 『탐구』 § 201에서 규칙을 따를 적에 일련의 해석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해석에 입각한 이해의 과정을 내면적인 심적 활동에 대한 비판적 생각과도 관련이 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사적 언어에 대한 비판적 생각과도 그대로 연계된다.

특이한 활동이며, 지성을 매개로 하는 어떤 한 과정이라고, 말하자면 도출 결과가 나타나 보이도록 그것을 감췄던 안개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으레 생각한다. 그러나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자! — 하나의 명제로부터 다른 명제를 거쳐, 그래서 추론의 사슬을 통하여 또 다른 명제로 넘어가는 이행이 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신비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규칙에 따라 한 문장 기호를 다른 문장 기호로 도출하는 것이고, 이행 도식을 나타내는 어떤 패러다임과 다른 패러다임을 비교하는 것이며, 기타 등등이다(RFM, I § 6).

논리적 추론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단계들이며, 논리학에서 ... 이어야만 함은 언어에 부과된 하나의 길이 된다. 이런 관점을 토대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학이 일종의 “초-물리학”이며, 세계의 ‘논리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초-경험적인 어떤 것’을 지각한다”(RFM, I § 8)는 식의 형이상학적 개념을 거부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추론에서 옳다/그르다의 개념은 실천적 행동과 유용성의 문제로 뒤바뀐다. “그러나 그 옳음은 여기에서 무슨 실재와 일치하는가? 추측하건대, 그것은 규약 또는 사용이며, 아마도 우리의 실천적인 요구일 것이다.” (RFM, I § 9)

논리 법칙들은 실제로 ‘사유 습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의 표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논리 법칙들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기’라고 부르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RFM, I § 131).

『탐구』 § 201의 ‘규칙의 역설’과 같은 맥락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적 명제인 규칙에 있어서 ‘이해의 동일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이 규칙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것을 해야만 한다. 이 말은 (수학적 명제인) 그 규칙이 여기에서는 당신에게 두 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 규칙은 단단한 벽으로 된 통로와 같이 당신

을 인도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이 규칙은 온갖 가능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확실히 반대할 수 있다. — 여기서 그 규칙은 명령과 흡사하며, 그 효과도 명령과 흡사하다.” (RFM, V § 32) 이러한 생각은 『탐구』 § 201에서 제시된 논점, 즉 규칙따르기는 해석에 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과 그대로 연결된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의 관심은, 한 표현의 의미가 바로 그 표현이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칙에 대한 서로의 해석이 같았을 경우 그 규칙에 대해 공유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규칙따르기의 문제를 가지고 귀납적 회의주의를 논한 것인가?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문제는 흄이나 굿맨이 귀납적 추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⁴⁴⁾

문제의 핵심은 한 표현을 과거에 한 사용한 설명이나 해석으로부터 그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진술로 넘어가는 귀납적 단계에 있다. 우리가 언어를 처음 배울 적에 우리가 적용하는 지식은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졌으며 그러한 표현들이 사용되어 왔던 방법에 대해 경험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에 관해 귀납적으로 기초한 결론들이다. 귀납의 문제는 일정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대등하게 채택될 수 있는 유용한 가정들은 무한하게 있다는 것이 참이 아니라는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단순한 귀납을 시도할 적에 우리는 무한히 많은 가능한 전제들이 접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유한하게 많은 그럴듯한 가정들에만 접하게 된다는 점이 증명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귀납적 회의주의는 그리고 의미에 관한 귀납적 회의주의는 어느 정도 극복될 것이

44) Wright(1980), 25쪽.

다. 어떤 표현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귀납의 경우, 그 언어가 무모 순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합리적인 것들은 모두 조만간 똑같은 가정에 이른다고 기대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상상했던 종류의 깊은 오해의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⁴⁵⁾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흄이나 굿맨과 달리 연역을 정당화하는 기존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⁴⁶⁾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이나 논리학의 연역적 추론을 인류학적인 틀에서 행해지는 규칙따르기의 문제로 본다. 2에다 2를 더하면 5가 아니라 4가 되는 산수 명제는 인간의 제도 안에 있는 문법적 규칙에 의해 참이 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과 귀납적 회의주의의 입장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에게 설명이 되게끔 하는 기준이 바로 합리성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표현의 옳은 사용에 있어서 어떤 절차들이 합리적이며, 어떤 유형의 가정들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규칙의 역설’에서 귀결되는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핵심은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행했던 방식을 정당화하는 추론의 이면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행한 정당화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행위의

45) 같은 책, 25-6쪽.

46) 굿맨이 제시한 역설은 어떤 사람이 어떤 기호나 낱말에 의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거나 발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탐구하는 인식론적 역설이다. 따라서 굿맨의 관심은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기본적인 존재론적 실재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가에 있다. Milikan(1990), “Truth Rules, Hoverflies, and the Kripke-Wittgenstein Paradox,” *The Philosophical Review*, 99, no. 3, 334쪽, 각주 19 참고. 연역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연역적인 논증들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굿맨 역시 이 점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은 잘못된 순환논증이 아니라 효력이 있는 순환논증을 역설한다. Bloor(1983), 118쪽.

밑바닥에 형이상학적인 초-실재와 같은 것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단호하게 정당화는 어디선가 끝나야만 하며, 우리는 단순히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가 보건대, 여기서 위험한 점은 정당화와 같은 것이 없고, 그래서 단지 우리는 그렇게 한대라고 말해야 하는 우리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정당화를 부여하는 것이다(*RFM*, II § 74).

그렇다면 이는 이제 가령 “동일한”의 정의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 즉 동일함이란 모든 혹은 대부분의 인간이 일치하여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라고? — 물론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당연히 인간의 일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가? 전혀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당화 없이 낱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낱말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RFM*, V § 33).

추론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제도들 중의 하나이며, 인간 존재의 인류학적 사실일 뿐이다. “나는 증명을 관통하여 나아가며 그러고 나서 그것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 내가 의미하는 하는 바는 다음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 사이의 관행 혹은 우리의 자연사적 사실이다.”(*RFM*, I § 63) 결론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추론 과정의 정당화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이 이러한 설명은 회의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회의주의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철차상의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왜곡한 철학적 전망을 비판하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에 고정된 인식론적 회의주의를 불식하고, 우리들에게 문법적 규칙을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영역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5

규칙따르기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이 언급한 점들의 긍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히려 그 규칙의 적용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사용하면서 그 규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무엇을 간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점이었다. $25 \times 25 = 625$ 에서 어떤 사람이 곱셈의 결과로 625가 아니라 50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곱하기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25 \times 25 = 625$ 라는 결정에 앞서 존재하는 올바른 답이 있든가 혹은 없든가 하는 점이 아니며,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25에 25를 곱한 결과로 625를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얻도록 훈련을 받아 온 어떤 사람’처럼 어떤 행동주의적, 혹은 규약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참 또는 거짓의) 진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그 등식은 이제 ‘경험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전형’으로 사용된 것이다. “명제 $25 \times 25 = 625$ 의 정당화는 자연적으로 누군가가 그러그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정상적 상황 하에서는 그 사람은 25 곱하기 25의 결과로 625를 얻는다. 그러나 그 산수적 명제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위 하나의 규칙 속에서 굳어진 하나의 경험적 명제이다. 그것은 그것이 곱하기의 결과일 때만 그 규칙이 따라 나왔다는 것을 조정한다. 따라서 그것은 경험에 의해서 확인된 것으로부터 도출되었으나, 이제는 경험을 판단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쓰인다.” (RFM VI, § 23)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관심은 규칙 회의주의에 함몰될 수 있다는 크립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언어놀이를 통해 다음의 물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하는데 있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

떻게 가능하며, 한 화자가 자신들의 공통 언어에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다른 화자가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규칙의 역설을 통해 규칙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 것이지, 규칙의 개념 자체나 규칙을 따르는 행위가 인식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본래 말하고자 한 것은 … 이로군요”(PI, § 334)와 같은 구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 없다는 점은 결국 철학을 어떤 식으로 실천하고, 혹은 감각의 한계 안에서 사람들이 언어의 사용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한다는 것이 회의주의적 귀결인가? 필자는 오히려 그러한 물음이 철학에 끝없는 적용과 창조적인 사고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트겐슈타인이 회의주의를 다루는 방식은 철학에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을 상대주의자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다. 자신의 감각에 의해 명백함에 사로잡힌 상대주의자는 자신의 사로잡힌 눈에 의해 철학적 문제의 원천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에서 어떤 이론이나 학파를 구성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이론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눈이야말로 철학에서 명백한 것의 현상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분명한지를 보는 것을 배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비트겐슈타인은 이론을 통해 철학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연관성들을 말 그대로 고찰을 통해서 철학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비트겐슈타인이 봄의 방식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방법의 목표는 특정한 것들이 보이

는 모습을 바꾸는 데 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의 증명을 명제들의 연속으로서가 아니라 그림으로 보는 것, 수학의 공식을 명제가 아니라 규칙으로 보고자 했던 그의 독특한 관점은 바로 연관들을 보는 것으로 이루어진 이해, 즉 모습의 변화로부터 귀결된 이해라고 할 수 있다.⁴⁷⁾ 따라서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주력했던 ‘실재’ 개념은 이제 후기로 들어서면서 언어놀이, 삶의 양식, 봄의 방식 등으로 대체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명제, 추론, 진리, 경험 등과 같은 개념들에서 어떤 깊이와 본질 혹은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은 말 그대로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문법적 착각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의 사용적 측면을 중시하는 비트겐슈타인의 다음의 구절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언어’, ‘경험’, ‘세계’라는 낱말들이 어떤 사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책상’, ‘램프’, ‘문’이란 낱말들처럼 낮은 사용을 가져야 한다.”(PI, § 97)

논리학이 마음의 이론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은 19세기에 논리학과 심리학이 갈라진 이래로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했다. 관념과 같은 주관적 요인은 수학의 객관적 진리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심리주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비판적 생각을 전개한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내놓은 철학적 성과는 수학철학과 심리철학이라는 두 개의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수학’과 ‘마음’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불러일으킨다. 수학을 마음과 연결시키는 이 주제는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작업은 이 글의 범위를 넘는다.⁴⁸⁾

47) 봄의 방식과 수학과 연관성에 대해서는 박만엽(2005), “수학적 증명의 조망가능성”, 『철학탐구』 제17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369-404쪽을 참고할 것.

48) 이 글을 읽고 많은 것을 지적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참고문헌

- 남기창(1994), “크루소의 언어는 사적 언어인가?”, 『비트겐슈타인과 언어』, 박영식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현암사.
- 박만엽(2003), “비트겐슈타인의 수학철학에 있어서 반-플라톤주의”, 『철학탐구』 제15집, 중앙철학연구소.
- 박만엽(2005), “수학적 증명의 조망가능성”, 『철학탐구』 제17집, 중앙철학연구소.
- 박정일(2002), “튜링의 다리와 비트겐슈타인의 수학철학”, 『논리연구』 제5집 제2호.
- Baker and Hacker(1984), *Scepticism, Rules and Language*, Basil Blackwell, Oxford.
- Backer & Hacker(1985), *Rules, Grammar and Necessity*, An analytical commentary on the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vol. 2, Blackwell.
- Backer & Hacker(1992), *Wittgenstein Meaning and Understanding*, vol 1, Oxford, Blackwell.
- Cavell(1979), *The Claim of Reason*, Clarendon Press, Oxford.
- Dummett(1959), “Wittgenstein’s Philosophy of Mathematics,” in Dummett(1978).
- Dummett(1978), *Truth and other Enigmas*, London, Duckworth.
- Floyd(1991), “Wittgenstein on 2, 2, 2...: The Opening of *Remarks o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Synthese*, vol. 87.

- Frascolla(1994), *Wittgenstein's Philosophy of Mathematic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Goldfarb(1985), "Wittgenstein on Following a Rule," in Miller and Wright(2002), *Rule-Following and Meaning*,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Hacker(1996), *Wittgenstein's Place in Twentieth-century Analytic Philosophy*, Blackwell, Oxford.
- Hintikka(1989), "Rules, Games and Experiences: Wittgenstein's Discussion of Rule-Following in the Light of his Development," *Revue Internationale de Philosophie*, 43.
- Klenk(1976), *Wittgenstein's Philosophy of Mathematics*, The Hague, Nijhoff.
- Malcolm(1986), *Nothing is hidden*, Basil Blackwell.
- Marion(1998), *Wittgenstein, Finitism, and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Clarendon Press, Oxford.
- Millikan(1990), "Truth Rules, Hoverflies, and the Kripke-Wittgenstein Paradox," *The Philosophical Review*, 99, no. 3.
- Schatzki(1991), "Elements of a Wittgensteinian Philosophy of the Human Sciences," in *Synthese*, vol. 87.
- Shanker(1986), *Ludwig Wittgenstein, Critical Assessment*, edited Stuart Shanker, Croom Helm, London.
- Shanker(1987), *Wittgenstein and the Turning-Point in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Croom Helm, London.
- Stroud(1965), 'Wittgenstein and Logical Necessity', *Philosophical Review*, vol. 74, in Shanker(1986).
- Wright(1980), *Wittgenstein on the Foundation of Mathematics*,

Harvard University.

Wright(2001), *Rails to Infi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Wittgenstein(1958),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ed. G. E. M. Anscombe and R. Rhees, tr. G. E. M. Anscombe, Blackwell, Oxford.

Wittgenstein(196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 D. F. Fears and B. F. McGuinness, Routledge and Kegan Paul, London.

Wittgenstein(1974), *Philosophical Grammar*, ed. R. Rhees, tr. A. J. P. Kenny, Blackwell, Oxford.

Wittgenstein(1975), *Philosophical Remarks*, ed. R. Rhees, tr. R. Hargreaves and R. White, Blackwell, Oxford.

Wittgenstein(1976), *Wittgenstein's Lectures o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ed. C. Diamond, Cambridge.

Wittgenstein(1978), *Remarks o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ed. G. H. von Wright, R. Rhees and G. E. M. Anscombe, Blackwell, Oxford. 『수학의 기초에 관한 고찰』, 박정일 옮김, 서광사, 1997.

Wittgenstein(1979), *Wittgenstein and Vienna Circle*, Blackwell, Oxford.

증양대학교 철학과

E-mail: smullyan@hanmail.net